



진리  
평화  
창조

#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등록번호 제 125호

THE OE DAE HAGBO

발행인	강희숙
집장	강희숙
편집장	강희숙
이미지문서	(02) 712-1022 ~ 1023 (02) 712-4112
이내선	02-712-1021 ~ 1022 (02) 712-4112
139-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상간리 신89	
인쇄인	김영수

제 580 호 1992년 5월 12일 (화)  
제 3 중 우편물(가) 금인가

## 오일거리의 태풍, 민주대개혁

민자당 자유경선과 5월  
공안정책의 합수관계

지자체 실시 / 악법철폐 / 득세  
권력 승복 분배 /

지난 5월 1일 전국 지자체 퀸은  
민주대개혁 구호는 이후 지속된 5월  
투쟁의 과정을 짚어본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청년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  
진 5·9 민주자주 투쟁은 한후 진개  
및 5월 투쟁의 방향과 그에 대한  
국민대중주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5·9 투쟁의 핵심구호에서도 나타  
났듯이 온 5월투쟁의 주요방향은  
민주대개혁의 실천이다. 이의 구체  
적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  
거 실시,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을 비롯한 각종 악법 철폐, 그리고  
총액임금제 저지를 비롯한 민중  
생존 보장 등 크게 세 가지 영역  
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민  
민운 전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  
대개혁투쟁을 중심으로 한 5월투쟁  
은 원초로 조성되기 시작한 현



지난 9일(토) 민자당 활동규탄 기도식위를 벌인 후 명동성당 앞에서 2만여명의 학우들이 정리집회를 개최했다.

### 지자제 실시, 악법철폐, 민중생존권 쟁취가 그 기본 방향

### 19일, 2차 국민대회로 민주대개혁투쟁의 대중화에 주력해야

정권의 공안탄압의 고백과 최근들  
이 경증 조작사건 및 반공·반민  
대율로기 공세의 강화로 나타나면서  
향후 민인운전영의 내용이 주목  
되고 있다.

현 정권에 의해 조성되고 있는 5  
월 공안정책의 특징은 사노행사건  
및 최근 대학가 인공기계장 파문  
에서도 드러나듯이, 국민을 사이에  
놓은 민족의 차별·폭력성을 부각시킬  
으로서 상대적인 위기와 확장과 그  
로 인한 정치적 반사이익을 염으려  
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5월 19일  
민자당 전당대회와 6월에 있을 제  
14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급격하게  
표현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출제  
입금 철폐 요구와 무정부주의의 발  
달이 된 선거권의 개정,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실시 등 각종 정치적  
생활사회의 회복과 함께 민인운  
전영의 5월투쟁의 예상을 짚으려는  
것이 본질이다. 그 한편으로는  
'미주식 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민

자당 대통령후보 자유경선을 국민  
적 확대 관심사로 보각시킴으로써  
현정권에 대해 끌어내고 불만이  
큰 경제주도 이후 정국의 방향을  
동방향선자로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또 하나의 본질일 것이다. 그

리나 이러한 정권의 계산은 공안정  
세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농민, 도  
시민, 청년학생 등 각 계층별 민  
중들의 자주적 진출이 늘어나고 있  
으며 이에 따르는 정치적 이해와  
요구는 이미 '경계된 요구'의 수준  
으로도 불구하고 이를 전진 연기하  
려는 한 경전의 의도를 민족과 파악  
하는 한 경전의 이해와 요구를 향후 민주대개혁  
투쟁으로 결집시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민주대개혁투쟁의 내용과 방향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와 각종  
악법철폐,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주대개혁  
투쟁의 방향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아니리 장기집권을 향한 6공의 사  
진포석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 크다. 반면 민민은 전영으로서  
는 이전 국보법, 노동악법 비롯  
한 각종 악법철폐 등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실천적 제도개선투쟁  
과 그 맥락을 같이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제도개선투쟁  
에 있어서 자주단체장선거경쟁과  
투쟁은 그것의 사활적 전제조건이 아  
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주지하니

시피 이번 3·24총선에서 드러난  
경우, 분명히 대통령 공약사항이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진 연기하  
려는 한 경전의 의도를 민족과 파악  
하는 한 경전의 이해와 요구를 향후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양시킴으로써 연대  
무정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시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와  
함께 ILO기준에 따른 노동악법철폐  
투쟁 역시 민주노조의 충돌전선이

된다.

따라서 대중투쟁을 일구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립동 5월투쟁의 해  
심의 권위인 민주대개혁투쟁은 그  
것이 대중적으로 발전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정세의 향방  
이 가능된다. 하겠다. 그것은 정권  
의 물리적·사상적란암을 범국민적  
민주대개혁의 생활투쟁으로 무력화  
시키고 다시금 공세의 투쟁국면으로  
전환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이 5월 10일

부터 1993까지 '민자당 제집권을  
저지 위한 실시주간'으로 선포하면  
서 이 기간내 노동자들의 일부투  
쟁과 부생으로도 광범위한 노동자  
대중을 반민주정부의 대로로 끌  
여 세울 수 있으며 6공의 실정을  
폭로하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반민  
주당 정서를 고















롯데제과 노동조합 평택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찾아서



# 달콤함 속에 숨겨진 자본의 독약

"우리는 롯데제과에 민주노조 조건을 갖춘다는 꽃은 그나마, 그리하여 진정 우리의 권리들을 찾고 웃으면서 현장생활을 하는 그때까지 써울 것입니다."

지난 5월 10일(금) 오산 회성

지구 민주당사에서 벌도로 마

련된 '롯데제과 노동조합 평택

지부' 사내를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농성장

에서 만난 비단 비단 위원장 베기

현(21세)과 18일간의 철야

농성을 거친 기색도 없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 자리에는 농성중인 여성

노동자들과 오산 노동문제 상

담소 관계자들이 모여서 무생

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함을 만

들면서 이날 경기대 수원캠퍼

스에서 관련한 전교조에서 제

작한 열화 달린 교문을 열며

이 관한 이야기가 향상되었다.

서너명 남짓한 명에는 베트

리스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지난 4월 1일 현장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참여 사진과 '롯데

제과 노동조합 평택지부 인정

과 구주노동자 석방하라' 25

명 세명 헌장이나 어용위원장



회사측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노조의 응집임을 노조원 가족들에게 온갖 혜유와 협박전화를 하는등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여 막으려고 하였다.

구속시키고 50여명은 해고, 또 는 강제사직시켰습니다. 이미 저희는 롯데제과를 수원현장을 고발하고 법정부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롯데제과 불법동물을 전개하고 합니다."고 전했

특히 노조원들은 회사측은

들은 회사의 심복인 이용노조

위원장이나 서승자 않고 만

하는 본사 유니온씨들을 몰아

내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사측

의 대리인인 대외원장

선으로 출출한 현행 노조선

거규정이 민주노조원의 참여가

보장된 직선제원의 전환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해마다 일정난 불가복불, 절

값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경부

에서는 경기침체를 노동자들

로 물리며 출입을 통해 임금제로 대변되는 현저히 임금

에게 정책을 회복해야 한다.

"진리를 반드시 승리

한다는 진리를 전하고자 암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

약하며 "민주노조회복하고 일

간답에 살아보자"라는 노동자

들의 결규를 되새겨본다.

△'롯데제과 노동조합 민주

지부' 인정을 위한 롯데제과 노

동조합 평택지부와 회사측은

지구 민주당사에서 18일에 결

의 회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재임금제 대상업체로 선

정되었습니다. 롯데제과는 이번에

그 대에서 비대위가 되었습니다. 한

시인장과 함께 롯데제과는 92년

임무와 연관된 항목 무경의 전

방을 어떻게 보십니까?

△'총재임금제 대상업체였던

제회 회사가 제외된 것을 원금

이 최근 저임금업체였기 때문

입니다. 타 회사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랐습니다. 심지어 회사측은 강제

구속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여 해마다

기본금, 수당을 10만원 이상을

올렸지만 우리는 기본금 10%

정도가 고작입니다. 권리

자들인 권리부정은 10%만 올



# 학원 제주체 학자교양 통한 자주적 교육과정 개편

그동안 학내에서 제기됐던 학생의 학사행정 참여보장 요구는 이제 더욱 구체적인 실천으로 들어서야 할 시기에 와 있다. 이는 92년 2학기 학사과정에서 이번 민주화 학사기구 수립에 대한 첫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번 본보에서는 2학기 학원제주학의 속으로 학생권과 학자교양에 맞춰 전반적인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본교의 교육과정 개선 책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4회에 걸친 연재들을 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 I. 교육과정 개편 의의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민주화는 외부로 부터의 본질적인 변화로써 학문사상, 표현의 자유를 유치·발달시키며 한 대학의 본래의 운영이 정치적 존폐와 함께 교육과정으로부터 자주화되는 당연한 논리적 귀结이다. 하지 만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과 학습의 당시자가 주제가 되어 교육내용은 학생이나 운영에

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 진

세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민

주화를 위한 교수회의」 소속

상단(『성성여대』) 교수가 절제

로 한 기본요리를 중심으로 살

펴보도록 한다.

학문사상, 표현의 자유를 유

치·발달시키며 한 대학의 본

래의 운영이 정치적 존폐와

제단위로부터 자주화되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하지

만 이전에는 지배권력

이 직임 혹은 간접적인 형태로

교육내용이나 학생이나 운영에

이 참여하는 자주적 개편과 운

행을 요구하는 중요한 분기점

이 됐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아직 미완된 상태로 이후 가장

시급한 개선요구인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대학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사

용하고 있다.

양적인 면에서 고등교육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

의 주제로는 학생과 교수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민주화

의 개선을

제기하는 등 학생과 교수

의 학생과 교수

# 민자당 청당일 맞아 전국 대규모 규탄집회

서울·용인, 학내규탄집회 갖고 국민대회 참석  
서울도심 2만명 시위… 용인, 성남 가두서 규탄 행진



민자당 청당일인 9일(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다

한 집권여당인 민자당 청당일을 맞아 본교 서울·용인 캠퍼스는 비롯해 전국 각 대학들은 891(금) 하나집회를 가진 데 이어 9일(토) 도심 곳곳에서 6·공화국의 실상과 집권여당에 대한 대체적인 규탄집회를 기록했다.

서울캠퍼스는 891·‘민자당 청당일’ 대회를 위한 예의에 대한 험다기기 대회’를 갖고 민자당의 경제·농민·노동정책을 중심으로 서도대학

를 가진 이후 현준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양심수 석방을 주요 항목으로 결정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서울 캠퍼스 주변에서 차세대 재계 협력 대회 유언비어를 시민들에게 배포하며 9일 일원 국민대회에 죄송으로 참여해 민자당 청당일을 다짐하며 자리를 선언했다.

다음날인 9일에는 각 대학에 ‘부정선거·민생파탄주’를 독재연장 민자당 반대의 날 선교식 및 민자당 규탄대회’를 갖

고 오후 2시부터 서울지역총동

생회연합(이하 서울총동) 각 지구별 청당대·회현·영등포·종로구 등지에서 2천·3천여명씩 대회를 결성하여 민자당의 실상을 규탄하는 선전전을 가졌다. 오후 6·12·20경부터는 서울지구가 종로구에 걸친 1만5천여명인 학생·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거두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이자리에서 6·공화국의 경제위기를 노동계급에게

전하는 총애임금제 철회와 민족운영 단위로 무기기 사용되는 국가보안법 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종교2교대·전 출·입과 시위를 벌였으며 경상은 이과정에서 당초 시위대에 죄송으로 참여장을 자제하겠다는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청당일은 날사하여 강경 전략을 사용했다.

이후 학생들은 을지로3가, 탑골공원 등 시민장소를 옮겨가며 8시30분경까지 거우시위를 벌였으며 명동성당과 모의 저 구비로 정리집회를 갖고 오는 19일(화) ‘민자당 청당대회 저지’ 시위에 다시 몰려들었다.

용인캠퍼스는 8일 5·18 광주

시위·총학생회를 위한 대회에 참석해 민생파탄주·민생파탄주·민생파탄주를 주제로 한 대회를 개최했다.

“학우들의 믿음 속에 우뚝서는 학생회를 견 디 토록 최선으로 노력

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서상준군을 만나〉

야 할 것입니다.”

“미래 학생회에서 충

생회장·권한대행으로 절정이

났지만 학생들은 통한 인문·파

경을 비롯해 생활총조사·여타의

방식으로 반드시 기지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학우들이 물려

나라 하면 사생없이 물려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우들의 믿

이 있는 이러한 사업과 힘

을 기울 수 없으며, 또한 학생

운동 전반에 대한 불신의 요인

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각 학우들이 믿을

것을 표명하며 말을 맺는다.”

〈김인숙 본보 편집장〉

상남지구 총학생회 연합(이하 용인총연) 소속 7백여명과 함께 성남소재 경원대학에서 민자당 청당일을 막아 집권여당을 규탄하는 ‘용인총연 5만명도 결의대회’를 갖고 각 대학별로 성남시 곳곳에서 경찰과 위치며 시정경찰을 향해 행진을 시작으로 시민집회를 위한 청당일을 위한 전선전을 기겼다.

본교 용인캠퍼스 학생들은 오후 3시경 사대원 시민총회의 집결시위를 시작으로 ‘해제 민자당’, ‘민자인 자유전선으로 국민을 용봉하는 민자당은 즉각 해제하라’ 등의 구호와 함께 시정경찰을 향해 행진을 벌였으며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오후에는 청당일을 맞아 집결한 용인총연 7백여명의 학생과 일반인 등 계약 학생노조원들이 원내 대학노조를 지원하기 위한 대학노동자연대 대회를 열어 출마자들에게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현 정권의 불순의도를 공동으로 규탄하였다.” 경의를 밝히고 분쇄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정부는 경제·재정 계획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며 중애임금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대학노조 수

속 노동자들은 참가한 가운데

‘총애임금제’를 청탁한 수

이다.”

경희대, 한신대 등 1219 대

학원노조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는 대학노동자연대

회장과 함께 100여명이 참석

하고 있다.” 원 정권의 부도덕성을 규탄했다.

또한 원정희의 의장이며 연

노련 의장을 맡고 있는 권경

길씨는 연대회를 통해 “대학

동지의 권리보호 무정에서 벗

이나 사회적 기여할 수 있는

무정을 기여해야 한다”고 격려

말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6일

(수) ‘정기 대회’를 개최해 대

제 6회 대회로 원회를 12월(오늘)

까지 행사 기획을 완료, 회장은 25

일(금)부터 27일(일)까지 하루 전역에 치를 것을 임명했다.

본교 출신 김성설 양 사노맹

단원 강제 연행에 항의

본교 출신 김성설(서양·불

교) 학생으로 8월 13일(내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월 29일(금)까지 원회를 모집·설정에 대한 강제 연행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학

단원에 있어 대학 입장을 밝혔다.

집권여당은 청당일을 앞두고

국회에서 대체로 원회를 규탄

하고 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집회는 이후 대학노조 소속 노

동자들은 본관 교수회 회의실에

마련된 회의 대체로 원회를 방

문; 죽석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경쟁기금을 전달했다.

